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9.(수) 06:00 <11.19.(수) 석간> 배포 2025. 11. 18.(화)

앰코코리아, 첨단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분야 투자 개시

– APEC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투자계획의 첫 결실
– 이번 송도공장 확장 투자를 광주공장 연계 투자로 이어나갈 예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2025년 11월 19일(수)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앰코코리아 '테스트동 착공식'에 참석하였다.

앰코테크놀로지는 1968년 대한민국 최초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아남산업'을 모태로 '97년 외환위기를 미국의 투자 유치로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회사로 성장하였다.

* 반도체 패키징 : 웨이퍼(wafer)에 미세회로로 설계된 개개의 칩을 잘라낸 후, 전기적 신호를 외부 회로와 연결하고 칩을 플라스틱 수지나 세라믹으로 봉하는 작업
** 반도체 테스트 : 웨이퍼와 패키지(package)의 전기적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

앰코코리아는 3개 생산라인 건설, 장비구축 등에 투자를 착수하여 AI 반도체의 패키징 양산 및 테스트 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내 A1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착공식은 APEC 2025를 계기 '글로벌 투자기업 파트너십' 행사(10.29)에서 발표된 글로벌 기업의 투자계획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앰코테크놀로지는 이번 송도사업장의 설비투자 증설을 광주 지역의 패키징 공장 연계 투자로 이어나갈 예정으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국내에 과감한 투자결정을 한 앰코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앰코코리아의 투자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APEC 계기 유치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확대, 입지·세제혜택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무역투자실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황인택 (044-203-40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AmKor社 인천공장 테스트동 착공식 계획(안)**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5.11.19.(수) 10:00~13:00/앰코코리아(주) 송도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50

○ **(참석자(안))** (정부)산업부 무역투자실장 (기업)Kevin Engel Amkor COO, 이진한 Amkor Korea 대표, (지자체)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협력업체) 삼성전자 등 협력기업 관계자 등

○ **(투자내용)** 인천 송도사업장에 ① 3개 생산라인, 클린룸 건설 ② 반도체 검사장비, 웨이퍼 온도제어장비 등 장비구축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회**	
10:10~10:35	25′	**모두 발언**	산업부, 인천경자청 등
10:35~10:55	20′	**비즈니스 개요 및 계획**	앰코 관계자
10:55~11:00	5′	**사업계획 보고**	
11:00~11:15	15′	**시삽 퍼포먼스**	
11:15~11:30	15′	**폐회 및 기념촬영**	
11:30~12:00	30′	**센테니얼홀 투어**	
12:00~13:00	60′	**오 찬**	북카페